

이혼율 현황과 국제비교

1. 이혼율 현황과 측정방법
2. 이혼율 해석시 문제점
3. 이혼율 해석시 유의사항
4. 이혼율의 국제비교
5. 혼인율과 이혼율

1. 이혼율 현황과 측정방법

□ 이혼의 사회적 의미와 측정

○ 이혼은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임.

[표 1] 이혼의 정의별 이혼율

연 도	혼인(건) (A)	이혼(건) (B)	혼인 대비 이혼율 (C) (%)	조이 혼율 (D) (천명당)	유배우 이혼율 (E) (15세이상 천명당)	부부 0 쌍당 이혼 1쌍	유배우 1인당 이혼 확률 (F) (%) (15세이상)
1970	295,137	11,615	3.9	0.4	1.1	471	0.21
1975	283,226	16,453	5.8	0.5	1.3	380	0.26
1980	403,031	23,662	5.9	0.6	1.6	311	0.32
1985	384,686	38,187	9.9	0.9	2.3	216	0.46
1990	399,312	45,694	11.4	1.0	2.4	209	0.49
1995	398,484	68,279	17.1	1.5	3.2	155	0.65
2000	332,090	119,455	36.0	0.5	5.3	95	1.06
2005	314,304	128,035	40.7	2.6	5.5	92	1.10
2006	330,634	124,524	37.7	2.5	5.3	94	1.06
2007	343,559	124,072	36.1	2.5	5.2	96	1.06
2008	327,715	116,535	35.6	2.4	4.8	103	0.96
38년간 증감	+32,578	+104,920	+31.7	+2.0	+3.7	-368	+0.75
변화율	9.94	90.03	89.04	83.33	77.08	-357.28	78.13
비율	1.11	10.03	9.13	9.13	4.36	0.22	4.57
비고				국제 비교시 사용	조이 혼율 보다 명확		개인 별 이혼 확률

주 : 혼인 대비 이혼율(C)=(이혼건수(B)/혼인건수(A))×100

조이혼율(D)=(이혼건수/연앙인구)×1,000

유배우 이혼율(E)=(이혼건수/유배우인구)×1,000

유배우 1인당 이혼확률(F)=(이혼자수/15세 이상 유배우인구)×100 = E×2×1/10

자료 : 통계청, 2008년 이혼통계결과, 2009

□ 이혼율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음 (표 2 참조)

○ 각 유형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 사용 시 주의를 요함.

[표 2] 이혼율 지표별 정의와 장단점

유형	정의	장점	단점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CDR)	인구 1000명중 발생한 이혼건수	-산출방법이 간편하고 단일 지표로 이용이 수월 -국제비교가 용이함	-유아동까지 총인구에 포함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 -국가간 및 지역간 이혼율을 비교할 때 주의가 요구됨. 즉,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혼인 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직접적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건수가 더 높게 보임
일반이혼율 (General Divorce Rate: GDR)	1년간 신고된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천분율로 나타낸 것	-15세 이상의 인구수를 사용하여 혼인상태가 가능하지 않은 인구수를 제외하여 조이혼율보다 설명력이 높음	-유배우 인구에 대해 발생한 이혼건수가 아니어서 조이혼율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연령별 이혼율 (Age-specific Divorce Rate)	1년간 신고된 연령별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 인구로 나누어 천분율로 나타낸 것	-연령대별로 이혼건수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가능	-유배우 인구에 대한 지표는 아니므로 효과적으로 이혼율을 나타내지 못함
유배우이혼율 (Divorce Rate of Married Persons)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누어 천분율로 나타낸 것	-이혼은 결혼한 인구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혼빈도의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지표로 사용됨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이혼율이 평생 발생하는 비율이 아니라, 특정해의 이혼율을 나타내는 것임.
결혼건수 대비 이혼건수	특정해의 결혼 건수 대비 이혼건수	-조이혼율보다는 정교함	-결혼과 이혼의 발생건수에 대한 목표모집단이 달라 이혼확률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 -최근의 이혼 경향과는 관계없는 해당년도 결혼건수에 의존
법원행정처 산출 방식	특정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체 누적결혼건수에 대한 전체 누적 이혼건수의 비	-조이혼율보다는 정교함	-조사년도 당시의 이혼경향이 아니라 조사당시까지의 누적 이혼경향을 나타내는 지표임. -따라서 최근의 이혼경향을 나타내지 못함

자료 : 황형태·이성임·방미진, 『통계연구』, 제10권 제1호, 2005에서 재구성.

2. 이혼율 해석시 문제점

□ 이혼율 해석의 문제

- 이혼건수 및 이혼율에 대한 수치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잘못 해석되어 실제보다 과대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¹⁾
-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발생한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로 계산된 이혼율을 사용했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음.
 - 혼인은 미혼자 중에서 특정 해에 발생한 사건인 반면, 이혼은 혼인한 모든 유배우 인구 중에서 발생한 사건임.
 - 즉 혼인과 이혼의 모집단이 다름. 이를 같은 모집단의 사건으로 해석하면 이혼율이 과대하게 제시되는 오류를 범함.
 - 예를 들어 2008년의 경우 혼인 대비 이혼율이 36.1%인데, 이를 해석할 때, 결혼한 사람의 35.6%가 이혼한다고 해석해서는 안됨. 다만, 이는 그해 결혼 건수와 그해 이혼건수를 비교한 것에 불과함.

3. 이혼율 해석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 이혼율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혼율의 규모보다는 이혼율 변화와 혼인 증가 대비 높은 이혼 증가율임

- 지난 38년간 이혼건수는 10.3배 증가한 반면, 혼인건수는 1.11배만 증가하여 혼인 대비 이혼율을 계산할 경우 9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즉, 혼인율이 이혼율만큼 증가하지 않아서 이혼율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것임.
- 실제로 유배우자가 이혼할 확률은 지난 38년간 0.21%에서 0.96%로 4.57배 증가하기는 했지만, 확률이 1%를 밑도는 매우 낮은 수치임.
- 아울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다른 이유는 OECD 주요국들에 비해 혼인을 많이 하기 때문임. 주요 선진국들은 혼인이 아니라 동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동거후 파트너가 결별하여도 이혼율로 잡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혼율 해석시 서구와 일대일 비교하여 이혼율이 높다거나, 전체 혼인의 30% 이상이 이혼으로 종결된다는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됨.

1) 황형태·이성임·방미진, 『통계연구』, 제10권제1호, 2005

□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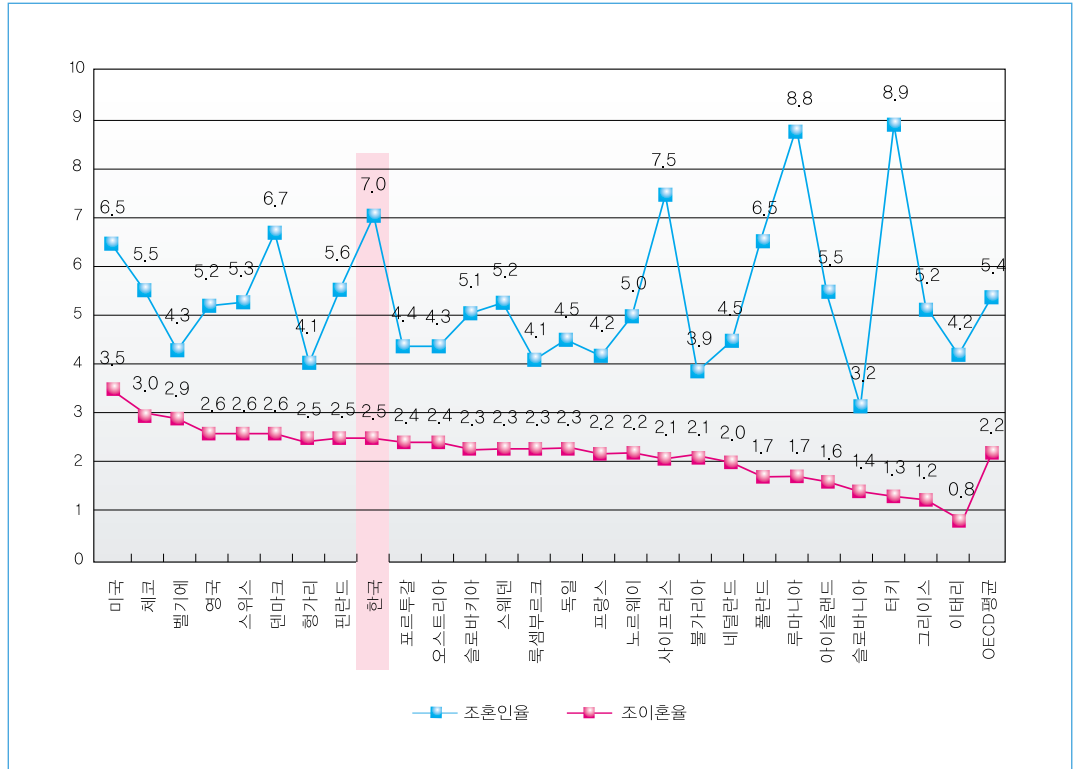
- 따라서 정확한 이혼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혼인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유배우 상태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야만 정확한 이혼수준을 언급하는 지표가 됨.
- 법원 행정처가 제시한 것처럼 전체 혼인한 사람 대비 전체 이혼한 사람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법원 행정처의 공식을 통해 계산된 2004년 이혼율은 9.3%임. 즉 부부 11쌍 중 1쌍이 이혼하다는 것임.
 - 따라서 결혼자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임.
 - 그러나 이 방법도 누적 이혼건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의 이혼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한편 유배우율 이혼율을 사용하면 조이혼율보다는 정교함.
 - 지난 38년간 조이혼율은 6배 증가하였으나, 유배우 이혼율은 2008년 4.8로 1970년에 비해 4.4배 증가함. 유배우자 1인당 이혼확률도 4.57배 가량 증가함.
- 학자들이 이혼율 계산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바, 보다 정교한 이혼율 계산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

4. 이혼율의 국제비교

□ OECD 국가의 이혼율 비교

-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이혼율은 '조이혼율' 임.
- OECD 국가 중에서 2007년 현재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3.5이고, 그 다음은 체코 3.0, 벨기에 2.9의 순임.(그림 1 참조)

[그림 1] OECD 국가의 혼인율과 이혼율비교(2006/7년)



주 : 덴마크,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는 2006년도, 독일은 2005년도 통계임. 미국은 연구자가 추가함.
 자료 : Eurostat, Eurostat yearbook 2009

○그 다음은 영국, 스위스, 덴마크로 2.6이고, 한국은 헝가리, 핀란드와 함께 2.5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이혼율은 국가균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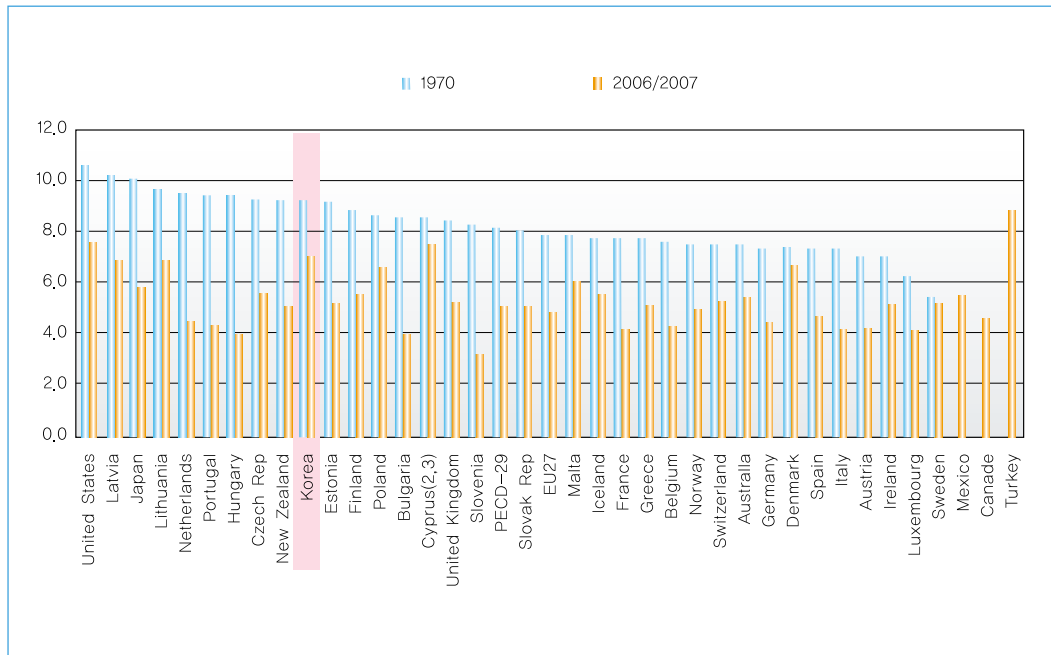
-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평균 2.2를 상회함.
- 이혼율이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 0.8, 그리스 1.2, 터키 1.3, 슬로바니아 1.4 등으로 남유럽 국가나 동유럽국가에 해당함.

5. 혼인율과 이혼율

□ OECD 국가의 혼인율과 이혼율의 관계

- 대체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국가는 혼인율이 낮음. 단 한국, 덴마크, 미국은 둘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역으로 이혼율이 낮은 국가는 혼인율이 높음.
- 혼인율이 높은 국가는 터키,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한국, 덴마크, 미국의 순임. 한국은 예외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국가 중에서 혼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OECD 국가의 조혼인율 변화추이(1970 ~ 2007)



자료 : Eurostat, Eurostat yearbook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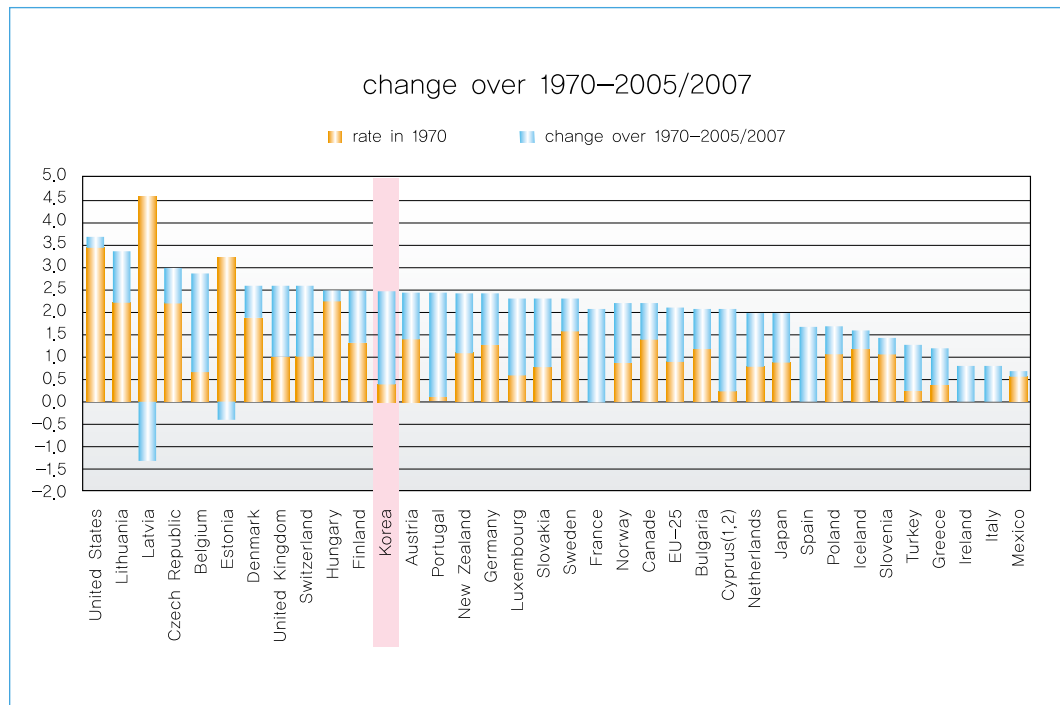
□ 혼인율 변화 추이

- 지난 37년간 혼인율 변화추이를 보면 1970년 이후 이혼율은 상당히 감소함. (그림 2 참조)
- 혼인율 감소가 적은 국가는 사이프러스, 덴마크, 스웨덴, 한국 등임.
- 반면 혼인율의 감소가 많았던 국가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바니아, 불가리아, 일본 등임.

□ 이혼율 변화 추이

- 지난 37년간 OECD 국가의 이혼율 변화추이를 보면 1970년 이후 이혼율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3 참조) 두 국가(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이혼율은 모두 증가하였음.
- 한국의 경우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과 함께 이혼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군에 속함.

[그림 3] OECD 국가의 조이혼율 변화추이(197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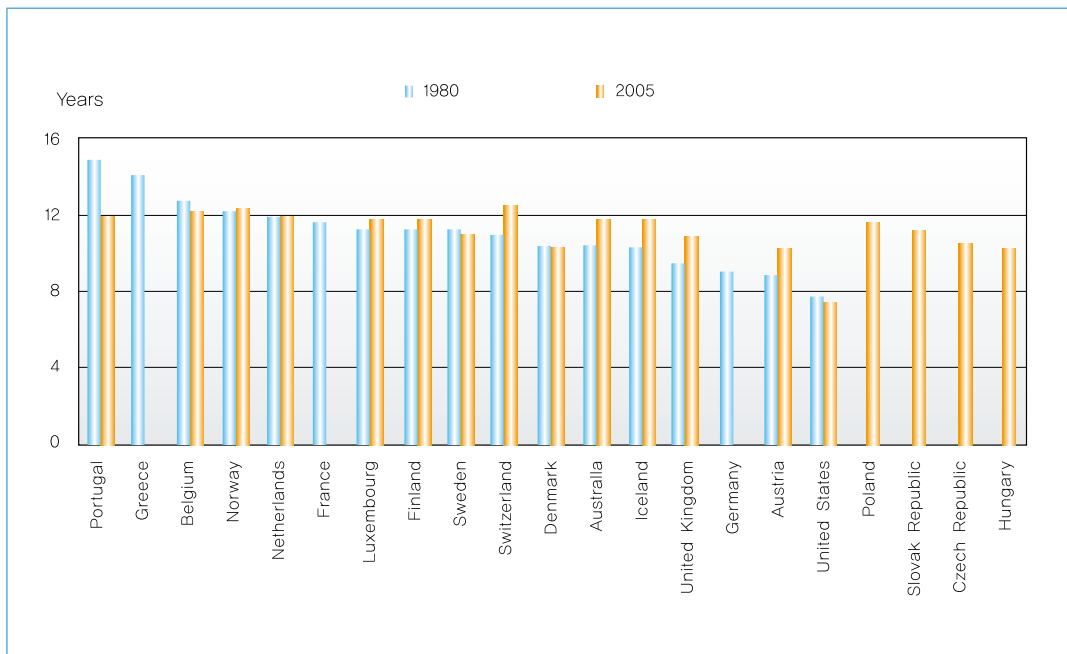


자료 : Eurostat, Eurostat yearbook 2009

□ 결혼지속기간

- 지난 이십여년간 OECD 국가의 이혼율은 증가하였으나, 결혼지속기간이 감소한 것은 아님.
- [그림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지난 25년간 이혼시 평균결혼기간은 약간 상승한 국가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단 미국의 경우는 평균결혼기간은 25년전과 비슷한 8년을 전후를 보이고 있음.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평균혼인기간은 12년 정도임.

[그림 4] 1980년과 2005년의 OECD 국가의 이혼시 평균결혼기간



자료 : Eurostat, Eurostat yearbook 2009

김미숙(복지서비스연구실장) 문의사항: mskim@k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